

생명의 떡 (출애굽기 16:1-12)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였다.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은 오늘도 이 떡을 먹으면 잘 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살리는 떡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 못 읽었지만 16장 끝부분을 보면 이 생명의 떡 만나를 향아리에 잘 보관 하라고 하셨다.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라고 설명해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우리 어른 신자들과 특별히 중직자, 산업인들은 중요한 언약이자 사명이 되기 바란다.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이 만드셨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수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때도 설계도를 그린다.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계획이 다 있었다. 그 계획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 것이다. 사람은 다 내 노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것을 상상하기도 힘들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시겠는가.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안다고 하셨다. 성경에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 이름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리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것을 다 믿을필요는 없지만 생명책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해서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주위의 간증들을 종합하고, 인생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전부다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 하신다. 그 계획을 처음부터 하셨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이다. 성경인물 그 누구도 자기 뜻대로 되었다는 사람 없다.

이런 사실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답이 몇가지 나온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염려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아무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끝이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사는 것은 일단 틀렸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이 주가 되면 안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일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틀린 것 고치려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근본적으로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계획을 따라갈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것이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흑암세력 꺾고 영적 눈이 깊어져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령 인도를 제대로, 더 깊이 받을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여신다. 지난주 말씀이 '영안'이었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리냐? 복음 누릴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안이 더 깊어지냐? 복음을 깊이 누리면 영안이 깊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가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생명의 떡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후 두달 반 정도 되었을 때이다. 나올 때 떡 반죽 같은거 해왔는데, 두달 지나는 동안에 다 먹어버렸다. 이제 먹을게 없으니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 참 기적이 아닐수 없다.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먹을것이 내려와 있는 것이다. 어느 민족이 이런 체험을 했겠는가? 놀라운 일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얻을것이라고 하셨다. 상상을 해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게 내려와 있는 것이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 아침에 나가서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걱정이 많은 것은 특별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먹고 살다가 하나님 때가 돼서 오라고 하면 가면된다.

이 일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다. 첫째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안 죽는다는 것이다. 거기는 먹을것이 하나도 없다. 모래와 돌 뿐이다. 농사를 못 짓는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늘에서 먹을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냐? 내가 너희를 죽일바에야 왜 데리고 나왔겠냐? 너희는 안 죽는다. 죽을때가 되어야 죽지, 먹을것이 없거나 상황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먹을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말 다한 것 아닌가?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이다. 너희는 안 죽는다는 것이다. 신자의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신자이다. 우리는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땅에서 난 것을 먹는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은 그냥 먹고 배부르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자체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메시지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영적인 해석을 하셨다. 그래서 생명의 떡되신 자신의 몸이 그 만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하셨다. 유월절에 그 양을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했다. 무교병도 먹으라고 하셨다. 이 먹는 것이 바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믿음으로 된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살리신 이유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늘에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내려 올것이라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준 것이다. 너희는 이것으로 살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늘의 떡. 세상에는 못 산다. 너희는 밖에서는 모래와 돌 뿐 아무것도 구할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도 모래와 돌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떡으로 살았다. 40년간 배고파 죽은 사람 단 한사람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로 듣지 않고 묵상하고 생

각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들은 40년간 아무 농사도 안 지었는데 매일 먹고 살았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다. 생명은 그 떡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아무리 뜨겁고 덥고, 돌 뿐이고 모래 뿐이어도 상관 없었다. 먹을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로 아니냐? 상황이 똑같다. 지금도 니가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땅에서 찾아 헤메면 그것은 틀렸다. 너는 하늘을 보고 살아라.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어디를 보고 사냐, 지금? 너도 그들처럼 약속의 피를 가진 언약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의 광야같은 인생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언약의 백성만 되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먹나? 떡을 먹으러 광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한없이 주시는 영적인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에는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었다. 진설이라는 말은 진열해 놓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교병이다. 실제로는 아무 맛이 없다. 열두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덩이를 늘 거기에 놓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꾸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한다. 12지파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데 일주일 후에 바꿀 때 제사장이 이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다. 맛은 없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일주일 된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5:30절에 이 떡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하셨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두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을 내 앞에 항상 두어서 내가 이 백성을 살리게 하라는 의미이다. 모든 백성들이 이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만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메시지도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다.

이 떡을 매일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날그날 것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이 떡은 우리의 구원일 뿐 아니라 오늘 힘이다. 오늘 먹어야 힘이 날것이다. 당연히 매일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었다.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엉망이어도 상관 없다. 만나만 있으면, 먹을게 있으니 무슨 걱정이었겠냐? 이것이 만나를 가진 자의 권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상황이 모래이고 돌 뿐이어도 상관 없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라는 그 말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있으면 상황이 어떠한지 관계없다. 믿으라. 언약으로 잡으라, 그 말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니기 쉽다. 마음을 딱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언약을 잡고 고백하면 된다.

2.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다 아신다. 아주 작은 벌레 하나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헤롯왕을 죽여버리셨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없이도 안 죽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30절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였다. 시편 139편 2절에는 하나님은 내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고 하셨다. 인간이 하나

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한 것이다. 알으라 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싹 다 아신다. 오늘 예배에 누구누구 참석했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름도 다 아신다. 누가 처음 왔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전부 싹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국말도 잘 하신다. 우리는 영어 못해서 헤매지만 하나님은 영어도 잘 하신다. 일본말, 스페니쉬, 태국말 전부 다 하신다. 본문에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몇가지 예가 있다.

오늘 읽은 말씀 외에 16장 후반부에 보면 17-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이 거둔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각자가 먹을만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는가? 많이 거둔 사람이 오는 중에 줄어들게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거두어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20절에 보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다. 매일 그날 먹을것만 거두라고 하셨다. 왜냐면 그 다음날에도 또 내리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까지, 혹시 안내려올까 싶어서 남겨놓으면 벌레 나오고 썩는 것이다. 그 전날 먹으면 배라도 불렀을텐데.. 그런데 썩게 된 그 날이 그 다음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2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2일분을 거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 때는 그 다음날을 위해서 저장해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은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27절에는 안식일에 혹시 있나 하고 나가보니 없었다. 그 날은 내려오는 날이 아니다. 여섯째 날은 두배 걸어서 일곱째 날에 예배드리고 집에 있으라는 것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이다. 참 놀랍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날짜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조정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딱 들지만 믿음이 없으면 없어진다. 원리만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중에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신다. 믿는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다 아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즉시 해야 할것과 말아야 할것이 구분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또 쓸데 없는것과 중요한 것 금방 구분할수 있다. 생각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미 결론 다 나왔다.

한주간 내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언약되기 바란다. 이 생각으로 한주간을 살면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에 많은 치유가 일어날 줄 믿는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다 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이것이라고 한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면 매일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깊은 한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주셔서 광야같은 인생에 약속의 만나를 주실줄 믿는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